

5·18 진상조사위 도대체 언제 출범하나

위원 자격 '군 경력 20년' 추가
여야 합의에도 법안소위 취소

5·18진상규명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출범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는 '조사위원 자격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막상 26일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취소되면서, 개정안 통과는 기약 없는 상황이었다. 진상조사위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던 5월단체는 실망의 뜻을 나타냈다.

26일 국회와 5월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계류 법률안을 심사할 계획이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갑자기 취소됐다. 추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4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룬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5·18조사위 출범 법률을 잡고 있는 조사위원 자격(제7조 제2항)에 '군 경력 20년 이상'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동안 총 조사위원 9명 중 3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한국당은 군 출신의 보수성향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위원 추천을 미뤘었다. 한국

당이 당초 추천했던 권태오 전 육군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법적 자격 미달로 청와대에서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한 국당은 군 경력만 있어도 조사위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국방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5·18 진상규명 범위에는 군과 관계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장기복무 군인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진상규명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불공정 위원을 제척 또는 기피해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4조)을 대책으로 꼽았다.

여당과 5월 단체에서도 해당 개정안에 부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위원 제척·기피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 자격을 따지며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조사위 출범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홍영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4월 개정안 발의 당시 조사위 출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정안 심사가 미뤄지며 조사위 출범 또한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진태 5·18기림재단 상임이사는 "조사위 출범이 계속 늦어지기 보다는 한국당 추천 인물을 받아들여 위원 제척·기피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일단 조사위를 가동시키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5·18 광장 분수 ... 찬란한 빛의 향연



26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를 찾은 시민들이 화려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분수를 보며 초가를 정취를 즐기고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대표 사적지인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는 지난 2015년 야간경관 연출을 위해 LED 수중조명등을 새로 설치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가동되고 있다. 사진은 시사각각 색깔이 달라지는 LED조명 분수를 드론으로 촬영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동물복지형 축산 '소걸음'

전국 최초 조례 제정하고 1353 농가에 2562억 쏟아부어
정부 인증 농가 고작 25곳 뿐 ... 유통시스템 개선 나서야

전남지역 축산 환경 개선이 더디기만 하다.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형 축산 조례를 만드는가 하면,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 축산 환경 개선에 수천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동물복지형 축산 농가 수는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의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조례'에 적합한 사육 기준을 갖춰 '전남도 지정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선정된 농가는 지난 2012년 이후 최근까지 173농가다.

매년 3~18 농가에 그치던 선정 농가 수는 전남도가 2017년부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로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300만원씩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81곳, 올 들어서 32곳이 추가되는 등 다소 늘었다.

가축별로는 한우 사육 농가가 85가구로 가장 많이 선정됐고 닭 44가구(육계 21가구·산란계 23가구), 돼지 18농가, 젓소 6농가, 오리 9농가, 흑염소 11농가 등이다. 하지만 전체 사육농가 대비 선정된 농가 수는 많지 않다. 전남도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선정된 오리 사육농가의 경우 전체 249 농가 중 3.6% 수준에 그친다. 한우는 전남 1만 7354 사육농가의 0.5%에 불과하고 돼지는 546 농가의 3.3% 밖에 안된다. 닭 농가의 경우 육계는 10.3%, 산란계 25.0% 수준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1년 5월, 축사에 방목장을 만들고 소와 돼지, 닭, 오리가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사육 밀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든 바 있다.

전남도가 이같은 조례를 근거로 '녹색축산육성기금'을 조성, 최근까지 '축사시설 신축 및 개·보수 비용'으로 517개 농가에 지원한 예산만 829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1353개 축산농가에 2562억원을 쏟아부었다.

소규모 축산 농가가 많은 지역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지 8년이 넘었고 수천억원을 지원하며 환경 개선에 공을 쏟은 점을 고려하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가' 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나마 전남도가 선정하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가'보다 훨씬 기준이 까다로운 '정부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가' 수는 25곳에 불과하다. 전북(74곳, 충북(32곳), 경기(27곳) 보다도 적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고민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농가들이 동물복지형 축산을 꺼

리는 이유는 사육 밀집도를 낮추고 가축 운동장을 만드는 데 많은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시장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공을 들인 만큼 돈을 더 벌 수 없는 현실에서 선택 친환경 축산 환경 개선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다.

축산업계에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 축산 환경 개선에 공을 들인 만큼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 값을 받는 판로를 개척해 주는 등 지원 제도를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맞춤형 인력교육 지원 조례 추진

광주시의회가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설립되는 (주)광주글로벌모터스와 협력업체 맞춤형 인력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3면>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맞춤형 도제 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시의회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 맞춤형 도제 교육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으며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광주형 일자리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례안은 다음 달 1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제안한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광주시와 교육청, 도제식 교육 참여 기업 등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광주시와 교육청은 물론 유관 기관은 도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성적 조작' 고교로 엄벌한다더니... ▶6면
굿모닝 예향-목포의 맛과 흥 ▶18·19면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중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HNT 하나투어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가을여행'을 소개합니다

추천여행 추석 9월 12일(목) 무안공항-대만여행

중국·마카오

백두산
연갈백두산 4일, 5일
499,000원~
#인권의 영산 #천지대경

상해
상해-주자강 4일, 5일
329,000원~
#관광특구 #상해시카스

마카오/홍콩
홍콩/마카오 4일
699,000원~
#홍콩1박+마카오1박 #불국대

동남아·대만

다낭
다낭 호이안-후에 4일
499,000원~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세부
세부 5일-일급리조트
494,000원~
#호캉스 #천사섬

방콕
방콕-파타야 5일, 6일
490,000원~
#요트투어 #스퀘어리조트

추석 & 개천절 특별기

하나투어 ATPF01.A
대만·지우펀·스펀 4일
9.12 추 석 135만원~
10.3 개천절 115만원~
#한국의 명산 #천지대경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 정보 변경 가능합니다

■여행상품 가격표(국내)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된,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도착비지] 도착비지금은 발권일 또는 발권일 당일 도착비지금은 상품가에 불포함됩니다. ■[선택관광]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관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1993-000006호 (충주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택시/승용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산/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관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시 대체일정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여행 유의 사항 ■여행 자재 ■철수 권고 ■여행 금지